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6년도 표어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성숙한 신자의 기도

(시편 25:1-22)

시편 25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순으로 각 절이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에서 다윗은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보겠다는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1. 끝까지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의지하며 구함

시편 25편은 감성적이 아닌 아주 성숙한 시입니다. 이 시의 입문에서는 ‘수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2, 3, 20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눅 9:2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롬 1:16),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롬 5:5).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을 갖는다면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롬 9:33, 10:11),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것이 수치를 면하는 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며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런 다윗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에게는 원수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칫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수치를 당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젊은 시절에 지은 죄에 의식하며 그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악마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악마는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마침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전 인격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호와여,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와 계약의 신, 구원의 신이라면 하나님은 창조와 신 능력의 신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2.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구함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3절) 시인은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편에 있는 우리가 순종하며 진실한 믿음과 깊은 신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4절). 이 말씀은 진리를 아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5절).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알 때에 우리의 기도는 더욱 힘 있고 확신에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십니다. 그러나 죄인 된 우리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할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사람, 곧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 당치 않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분입니다(3절). 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이시며(5절), 공호와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6절). 죄인은 기억하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7절),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20절). 뿐만 아니라 성실과 정직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21절), 그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8-15절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선하시고 정직하시며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의를 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과 의를 최고로 아름답게 표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되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 사하시는 분입니다(11절). 우리는 자기의 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자만하지도, 혹은 죄가 많다는 이유로 절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을 가르치시고 행복한 세상을 살게 해 주시며 후손으로 유산을 상속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는 인방친구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항상 ‘여호와를 우러러 보겠다’고 합니다.

3. 공호와 의가 만날 때 구원을 구함

“여호와를 선하시고 정직하시니”(8절).

사랑과 의가 공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공의만 강조하면 저주만 나옵니다. 그렇다고 사랑만 강조하면 혼란만 야기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인은 먼저 모든 근심을 말끔히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과중한 근심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시인은 원수로 말미암아 놀리는 근심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외롭고 힘든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또 죄를 씻어 달라고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도합니다. 육신적 고난보다 자신의 죄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십니다. 그러나 죄인 된 우리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할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사람, 곧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접근하는 일에 주체 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의 언약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SB(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서성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U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한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제6기 카자흐스탄 단기선교사 모집

8월3일(목)-11일(금) 9일간

오늘 8월3일(목)부터 11일(금)까지 9일간 카자흐스탄으로 파송 받아 단기선교활동을 펼칠 제6기 단기선교사를 모집한다.

선발인원은 25명 이내이며 본인이 선교여비를 준비하여 가는 자비량 선교(1인당 1,200,000원)이다. 카자흐스탄 단기선교사는 선교와 교사강습, 여름성경학교, 찬양집회인도, 건축, 의료, 미용, 태권도, 무용 등 여러 부문에서 선교 및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단기선교사로 파송 받아 주님이 명령하신대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서울교

회 젊은이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

한편 단기선교 지원자들은 반드시 세계선교대학 등 교회에서 실시하는 준비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등록은 4월2일까지 받는다.

<단기선교팀 임원>

지도: 장석남 목사 단장: 신용식 장로

총무: 홍일성 집사

기획: 노창훈 서기: 김경철

기술지원: 조남현 지원팀: 김영주 집사

카자흐스탄 타라즈 교회당 건립

우리교회는 카자흐스탄 타라즈 지역(이은준, 강혜정 선교사에 준비된 대지에 선교 센터로 사용될 교회당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타라즈에 건립될 교회당은 약 320평의 대지에 150여명의 성도가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평 50평의 교회를 건축하고 대지 내에 있는 헛간처럼

된 건물은 수리하여 식당과 주방, 화장실로 사용할 예정이다.

건축허가와 건축 중 안전문제, 그리고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내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서울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요청된다.

새가족 환영회

3월25일(토) 오후 5시 801호 만나홀에서

2006년 첫 새가족 환영회가 3월25일(토) 오후 5시 만나홀에서 열린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등록된 모든 새가족을 한자리에 모셔 환영하고 친교의 시간도 나누며 교회 정착을 위한 교구 및 교회학교 소개의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회원, 각 교구 교구장, 간사 및 다락방장, 각 선교회 및 전도회 회장들도 함께 참석하여 새가족을 환영하게 된다. 첫 새가족 환영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새가족을 격려하고 기도로 성원해주시기 바란다.

새번역 주기도 · 사도신경 총회에 다시 헌의키로

지난해 90회 총회에서 총회의 운영미숙으로 인해 통과시키지 못하였던 새번역 주기도 · 사도신경을 올해 열리는 91회 총회에 다시 헌의하기로 하였다.

성도들의 기도로 91회 총회에서 반드시 새번역 주

기도 · 사도신경이 통과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서 같은 주기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북한 구원운동(Save N. Korea)과 조선족 교회에 선교 지원키로

교회는 플라스틱 풍선 속에 전도지를 특수제작한 기구에 넣어 북으로 날려보내 예정된 시간에 풍선이 터지면 북한 땅에 전도지가 뿌려지게 하는 특별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북한 구원운동(Save N. North, 대표회장:이종운 목사, 상임: 김상철 장로)' 과 중국동포들 중 조국에 일자리를 찾아왔으나 어려운 생계와 편견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삶

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역하는 조선족 교회(담임: 서경석 목사)에 우리교회가 다른 교회와 조국을 섬기는 제사장된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이들 두 곳에 선교지원을 하여 사역을 돕기로 하였다.

우리교회를 통해 복음의 지경이 넓어져 북한과 중국 동포들도 주일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한다.

8대 권사 · 9대 안수집사 선출

5월28일(주)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교회일꾼을 양성하기 위하여 8대 권사, 9대 안수 집사를 5월28일(주)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서울교회 규정 5조 3항에 해당 하는 자로 당회가 공천한 후보 중 제직회에서 피택자의 배수를 선정한 후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과반수 득표자 중 종다수 득표자 순으로 확정하게 된다.

3월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3월중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갖는다. 교회는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에게 머그컵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다. 3월중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9독>

(4교구)이정옥 권사

<2독>

(6교구)김희진 권사

<1독>

(1교구)김명숙 권사 박원옥 집사

(5교구)이은영 권사 (6교구)양지훈 집사

(9교구)송옥혜 권사 (11교구)조정옥 집사

(13교구)강민자 집사 김영식 권사 조정식 장로

(14교구)정명숙 성도 (초등부)이인

장년1부 오후반 신설

주일 오후 3시40분 706호에서

신혼가정부를 수료한 12가정(24명)을 중심으로 장년1부 오후반을 신설한다. 교육장소는 706호실을 사용하게 되며 시간은 주일오후 3시 40분부터 4시 10분까지이다.

부장으로 황정옥 집사 부감으로 이양철 집사가 봉사하게 된다.

스데반회 수련회 열려

3월24일-25일 무봉산 수련원에서

우리교회 안수집사들의 모임인 스데반회(회장 김영주 집사)의 수련회가 3월24일(금)-25일(토) 양일간 경기도 평택시 소재 무봉산 수련원에서 열린다.

모든 스데반 회원들은 부부동반으로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이종운 목사는 특강을 하게 된다.

만민에게 전도-70인전도대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서순희 집사(14교구)



서울교회 주변 아파트 단지에 우리 서울교회의 좋은 평판이 봄 소식처럼 나뭇잎입니다. 어떤 소식인가 들어보았더니 아름다운 미소와 상냥한 말솜씨와 겸손하고 정중한 자세로 인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대원을 칭찬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칭찬을 받기까지 추운 겨울날 불의 살이 에이고 손가락 끝이 시려 내 손이 아닌 것 같고 볼펜심이 얼어서 글씨조차 쓸 수 없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며 목사님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서울교회 생각하며 전도하였습니다.

전도대가 현장에서 전도활동 중일 때 중보기도팀의 기도용사들은 하나님께 앞드려 부르짖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 드디어 우리는 전도의 지경을 넓혀가게 되었습니다.

3월9일,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도곡 렉슬 3,000세대' 그 여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한 갈렙의 심정으로 도곡 렉슬 단지를 정탐했습니다. 장목사님, 하장로님, 목요축회팀, 중보기도팀 모두 32명의 정탐군은 그 높은 성같은 도곡렉슬 단지를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 단지를 빙 돌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 판 생각 잠답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손을 마주 잡고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단지 꼭대기에서 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도곡 렉슬 단지를 서울교회에게 주소서"

3월15일, 사전에 세운 전도전략대로 도곡렉슬의 땅을 밟았습니다. 출발 전, 방문목적과 전도태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오늘의 전도전략을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통성기도를 드렸습니다.

조장과 조원이 한 팀을 이루어 38개 조로 나누어진 우리는 입주 축하선물과 서울교회를 알리는 소식지를 담은 쇼핑백을 들고 조용히 아파트 단지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각자 맡은 동을 가가호호 돌며 서울교회를 알리고 전도가능한 대상자를 만나고 불신자에게는 친절하게 입주축하 선물을 전하며 끝까지 상냥한 미소와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전도 후에는 교회로 돌아와 전도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용기, 진지한 자세가 있는 서울교회 전도대원들이 도곡 렉슬 그곳에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울교회를 전하고 왔습니다.

무려 969세대를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70인전도대는 앞으로 대담한 전도전략과 꾸준한 기도로 도곡렉슬 주민께 우리 서울교회를 알려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전도사역을 계속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자 마지막 당부인 전도사역이 서울교회의 70인전도대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민에게 전도-카자흐스탄 중보기도팀

영적 싸움을 기도로

이영숙 권사(카자흐스탄 중보기도팀장)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될 예배당 주시기를 간구한 저희에게 예배당 헌당의 감격을 주시고 2006년도에는 총 20분의 선교사를 파송케 하시며 더불어 시작된 중보기도팀의 기도의 열기는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선교지마다 크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란 문화와 기후, 음식과 언어가 다른 이방민족을 서투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온갖 문제점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자신들의 영육간의 재충전의 틈이 없이 계속되어지는 불안정한 사역의 연속입니다.

이슬람권 및 우상숭배로 꽉 찬 사탄의 역사 속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현지 동역자가 얼마나 되겠으며, 동역자보다는 배척자와 감시자가 더 많은 선교지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불안감, 그 어려운 사역들을 위해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이것은 서울교회 은 성도가 마땅히 동참해야 할 의무이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500만 카자흐스탄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오직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가 사역하고 계시는 이은준, 강혜정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의 모임이 매 주일 찬양예배 후 104호실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중보기도팀은 이슬람이 창궐하고 있는 저곳의 선교사님들의 영적 싸움을 기도로 후원하며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위해 선교사로 나가든지, 중보기도팀에 합류하여 보내는 선교사의 직임을 감당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하게 하소서 서울교회 모든 성도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2010년까지 100명이상의 선교사가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파송되는 선교지마다 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들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 카자흐스탄 교회 터- 이 곳에 교회를 세워 선교의 기지로 서도록

신임 교역자 탐방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장석남 목사(청년부, 70인전도대, 영어예배부 지도)

저를 약탈기에 넣어 꼭 달렸다가 꼭 짜낸다면, 아마도 '은혜의 영성'과 '리더를 세우는 양육 시스템'이라는 글자가 남을 것입니다. 이 두 주제가 지금까지 저의 열정을 다 바쳐왔고, 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달려가기 원하는 삶과 사역의 최우선 가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말과 글로

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신앙의 신비와 기쁨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가운데, 열매를 맺고, 이 귀한 축복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파도치며 흘러넘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든 초신자가 맨바닥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갈 수 있는 - 신나고 재미나고, 감동적이고, 그래서 울다 웃다보면 어느 사이엔가 영적 거목으로 우뚝 서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 양육 시스템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꿈속에서도 연구하고, 자다가도 벌떡 벌떡 일어나 메모하게 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8년 전 제게 돕는 배필, 강남희, 아들 하랑(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신다)입니다. 그 밑으로 4살된 딸이 있는데, 하늘(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신다)입니다.

부임한지 딱 한 달 되었습니다. 앞으로 만나 함께 사역하고 섬기게 될 한분 한분이 행복해 지는 것이 저의 가슴 설레는 바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만나 주신 인사말을 빌려서, "Don't Worry, Be Happy!"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06 섬김위원 추가임명

우리교회는 성장과 발전을 계속하는 부서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분기별로 섬김위원을 추가로 임명한다.

임명받은 이들은 각 부서에서 죽도록 충성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란다.

1. 교육위원회

- (유아부)
 여부감: 최향봉
 김혜진, 안병숙, 신미선, 한 령, 김 영, 박재민, 김은비, 현성출, 김은정
- (유치부)
 함정희, 김수연, 오윤정, 이은총, 천아름, 조광희, 조상희, 임형빈, 송지혜
- (유년부)
 이영미, 임미경, 허윤화, 유수진, 김찬진
- (초등부)
 곽선자, 김다희, 김은정, 박민숙, 최광혁
- (어린이찬양예배)
 남부감: 최임수
 노재균, 이조은, 유수진, 김진희, 조광희, 구진영, 구진경, 장윤정, 김숙자, 이주현, 김선미
- (중등부)
 오세정, 오세인, 김보은, 신민규
- (고등부)
 강혜주, 김규태, 배석훈, 김동봉
- (소요리 문답부)
 부감: 소선자
 양육교사: 강신태, 강승웅
 기도교사: 김장섭, 이이성, 구귀순, 박대영, 김숙자, 서경애
- (새가족부) 김정희, 최원자, 조상환
- (사랑부)
 김혜중, 이영애, 김은빈, 허나운, 차신영, 이고은
- (신앙강좌2부)
 이종창, 김숙자, 문분순, 정병수, 김희옥, 김명숙

2. 예배위원회

- (1부) 현금: 최양자, 이봉규
- (2부)
 안내: 박정수
 현금: 이신정, 배정자, 박정옥, 남상경, 하미영, 김수복
- (3부)
 안내: 배경옥
 현금: 나금주, 유순섭, 김수정
- (찬양예배) 안내: 김경희

3. 재정위원회

(계수1부) 임옥균 (계수2부) 장두현

4. 찬양위원회

(찬양대 양성반) 여부감: 이은자

5. 선교위원회 위원: 이번생

6. 주부대학

김사라, 김준자, 남태순, 박혜선, 송인숙, 이난화

7. 차량관리부

위원: 한길동, 김규환, 이선표, 정상달, 최명수

8. 예전부 김상태, 장두영

9. 찬양대원

- (가브리엘)
 소프라노: 조정옥, 이경혜
 알 토: 윤재원 팀파니: 홍정미
- (할렐루야)
 소프라노: 이수자, 전광환, 김지현, 정다운, 김미란,
 엄금순, 경은숙, 송미정, 박재숙
 알 토: 박래경, 차명숙 테 너: 이원중, 손영호
 베이스: 임광호, 박종민
- (임마누엘)
 소프라노: 윤희영, 정혜승, 윤은숙, 이민정, 우고은,
 박찬미
 알토: 서민애 테너: 오태연, 이병우
 베이스: 조건영, 우령찬, 고광석
- (베들레헴)
 테너①: 양지훈, 유근중, 이강진, 장윤식, 오유식
 테너②: 윤성남
 베이스: 임광호, 백승갑, 유율상, 최용걸
 바리톤: 안영수
- (예루살렘)
 소프라노: 정윤용 테너: 이동운, 김지홍
 (호산나) 소프라노: 전광환
- (시온)
 소프라노: 최인애, 김진희, 김정란
 알 토: 최진경 테 너: 최광혁
 베이스: 하영수, 유장열, 서준식
 (은빛) 소프라노: 김화집, 구옥수, 정연택, 이재순
 (갈렙) 알토: 김영식, 이현주, 안분선
- (핸드벨)
 High bell: 박찬희, 전희진, 최주미, 김경숙
 Middle bell: 김연경, 박창해, 김재경, 황지영,
 서지영, 이유나, 신은미, 최정희, 장옥경
 Base bell: 최인애, 김민기, 김성태
- (아멘관현악단)
 피아노: 박영애 바이올린: 오경미, 김지연
 플룻: 임규연, 김유진 클라리넷: 임경민
 타악기: 구슬희

(필그림) 손형호, 김성주, 이지민
 (새벽기도회) 반주: 홍혜란

10. 교구위원회

- 1-2 부다락방장: 엄성웅 3-5 부다락방장: 이정수
 3-20 다락방장: 원용범 3-20 부다락방장: 배재송
 5-10 다락방장: 이영희 6-11 다락방장: 김효순
 6-11 부다락방장: 최재춘 7-1 부다락방장: 정동학
 12-10 다락방장: 나기태 13-4 다락방장: 김주년
 13-5 다락방장: 진교숙 13-5 부다락방장: 박길희
 13-8 다락방장: 송인숙 13-15 부다락방장: 신경원
 13-20 부다락방장: 조윤희
 13-38 부다락방장: 채여숙

3-5다락방 분리

(3-5다락방) 김세재 유승순 이정수 김혜수 박경배 김동진
 강태수 이지우
 (3-20다락방) 이학주 배재송 원용범 박동원 김중본 강병찬
 정성길 이영균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1일(화) 비전2020운동 운영이사회를 소집하고 한국기독교 정치연구소에서 지자체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특강한다. 23일(목) 복음신앙동지회 월례모임을 주관한다.
- 이사: 오성훈 성도 박진희 집사(1교구) 도곡역셀@ T. 6241-9938
 민병주 성도 노명옥 집사(1교구) 영등포구 양평동 5가동보@ T. 2634-1410
 이자혁 집사(2교구) 서초구 반포동 729번지 T. 549-1904
- 주간식당봉사: 비회 전도회(3월19일) 마리아전도회(3월26일)
- 금주의 식사: 김도훈 김희자 집사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교회계공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성경대학을 비롯한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2. 새로 개교한 호산나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3. 북한의 신앙자유와 인권회복 위하여
4.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 교회오시는 길

